

2005 12월호 제369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12월호

발행일 : 2005. 12.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5
통권 제369호 12

생각해봅시다	4	달리는 여성들/차미례
세미나	6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
실태조사	9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식품 및 물질에 대한 사용
가격조사	12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및 용품
고발사례	14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알아봅시다	16	유·무선 통신 관련 주요 시한 알고 계시나요?
소비자경보	18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행위 조심
소비자정보	20	'조류인플루엔자(AI, 조류독감)', 알고 예방합시다
소비자뉴스	22	휴대폰 결제 이달 말부터 본격화
식품뉴스	24	카레 주성분 '강황' 위장 보호에 탁월
여성뉴스	26	모유 먹인 여성, 당뇨병 위험 낮아
생활정보	28	가습기, 물 매일 갈아주세요!
공트	30	운수대통/노수민
가정요리	32	조출한 송년 파티 음식
에너지절약가이드	34	고유가시대, 기름값 절약의 지혜
건강	35	수족냉증
여행	36	겨울의 추억과 낭만을 찾아서
문화산책	37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중앙회소식	38	교육시설·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지부소식	40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제26차 주부대학동문회 및 송년회

〈표지사진 : 균형 잡힌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중앙회, 05. 12. 13), 안전한 스크론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방안 토론회(대전광역시지부, 05. 11. 30)〉



차 미 레
번역가 · 세계일보 논설위원

달리는 여성들

2000년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사회현상'으로 나는 서슴없이 마라톤 붐을 손꼽는다. 국민소득 1만불이 넘으면 유행한다는 마라톤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만 해도 몇 십명의 '쑈'들이 동호인단체를 이루고 지역이나 직장단위로 연습을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젠 영화 '말아톤'에도 등장하는 마라톤 전문지 '포커스 마라톤'에 공식 등록된 단체만도 2천개가 넘는다. 전국에 공인 풀코스 대회만도 연간 50여개, 날씨가 좋은 봄가을 주말엔 십여개의 대회가 각지에서 열릴 만큼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전문선수를 엘리트선수,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 일반인을 '마스터스'라 부르는데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한 마스터스들만 4만명, 그 중 2천명 정도가 여성이다. 마라톤까지는 아니라도 전국 달림이 인구를 다하면 4백만명, 그 중 여성이 50만명에 가깝다. 이제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마라톤이 엄청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언론인에서 마라톤광으로 변신한 남편 덕에 몇 번 마라톤대회(10km)에 참가해 본 적이 있다. 아마추어 온라인 전국조직인 런너스클럽에도 가입했다. 달리기도 안하면서 마라톤화에 팔려 다닌다는 뜻으로 아이디도 '신발끈'으로 정했다가 결국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겸 달리기 시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첫째, 조선일보춘천대회나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등 큰 대회에서 일반 여성부 1위를 몇 년동안 휩쓸고 다닌 여성주자들이 아가씨들이 아니라 거의 30~50대의 주부 마라토너라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동안 주요 대회 상위권을 휩쓸었던 50대 중반의 장영신, 또 일본서 열린 100km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상위권에 든 50대 초반의 김정옥씨, 2005년 26개 각종 대회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정숙불패'의 주인공 이정숙(40)씨, 취미로 조금씩 달리다가 이젠 마라톤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는 문기숙씨(43)등이 그들이다.

둘째, 이 여성 마라토너들을 향한 일반(대개

는 남성 마스터스)의 애정과 감탄엔 다른 부문도 그렇듯 질시와 비하가 섞여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장영신씨는 '주로(走路)의 마녀'다. 화려한 빨간 장갑과 망사 스타킹 등 패션도 화사한 그녀의 자그마한 체구가 주로에서 자신을 획 앞질러 가면 추월당한 남자들은 '아줌마에게 추월당한' 기분을 만회하려고 십중팔구 기를 쓰고 따라간다. 풀코스를 3시간대에 뛰는 엄청난 주력의 그녀는 가도 가도 추월하긴 커녕 체력소모와 탈진으로 대회를 망치거나 기권하게 되므로 로렐라이나 사이렌 같은 마녀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그밖에 남성들도 힘든 '서브쓰리(sub3-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를 해내 수상권에 단골로 드는 문기숙, 배정임, 김정옥, 심인숙씨 등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프나 10 kg를 뛰거나 하면 마라톤 사이트엔 '상금을 노리고 체면도 없이 짧은 코스를 뛰었다'느니 야유성 글들이 수북이 올라온다. 그런 점에서도 마라톤은 인생의 축도요 남성주의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중요한건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주부 달림이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마라톤은 정직한 운동이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체력과 고통을 참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동안의 훈련이 고스란히 결과로 드러난다는 걸 비방성 댓글을 올리는 남자들도 잘 알거라고 믿고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엄청난 댓글이 오가는 온라인 마라톤세상은 그래서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30여년을 남자세상에서, 그것도 네 군데 신

문을 거치며 기자로 살아온 나는 마라톤의 그런 점이 범상치 않게 여겨진다. 사소한 불만과 티격태격도 묵묵히 달리는 행위 하나로 해결되고, 100리길을 완주하고 나면 땀에 젖은 몸을 서로 얼싸안고 격려와 치하를 해주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 그 중심에 서있는 주부 달림이들에게서 나는 희망을 본다. 그것은 반드시 마라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아이들만 고생시킬 수 없어서, 또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주부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의 희망이다. 일례로 해마다 15만 6천여명을 모집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70%가 여성인데 그 중 대다수가 늦게 배움에 눈뜬 주부들이다. 방송대에선 이들은 '공주(공부하는 주부)'로 부르며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사회각부문의 전문직 활동여성의 증가, 전에 없이 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NGO활동 종사자들의 열성과 에너지도 대단하다. 평생 신문사와 방송국(TV 번역일) 사이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반성하게 될 정도다.

중요한 건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것이며 '나의 일을 명예로 알고'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해낼 거라는 점이다. 우리는 수많은 어수선 한 사건들과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지난 한해를 보냈다. 2006년엔 우리 모두의 앞에 힘들지만 아름다운 주로가 펼쳐지고, 큰 무리 없이 자신의 코스를 완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

윤 종 희 / 동덕여대 교수

I. 들어가며: 한국 사회의 변화요인

196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 못할 큰 변화를 겪고 있어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해야하는 한국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후기 산업 사회로의 이동이라든가, 제3의 물결로의 진입이라든가, 핵가족 사회로의 변화라든가 하는 전환기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다.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는 격변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의식과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발 빠른 적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치관 변화가 초래한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

1. 개인주의 확산의 배경: 경제적 기술적 변화 요인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가치관이 강한 사회였다. 그러나 IMF 사태의 충격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권위가 붕괴되고, 국가 주도의 복지라는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개인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정보화와 네트워크화의 뒷받침으로 더욱 폭넓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의 생활전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짙어지고 있으며, 제도와 관행 역시 개인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이 가족 부문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현상으로는 가족구조와 형태의 다양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 개인주의의 확산과 위기에 처한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주의에서는 가부장적

요소가 핵심적 질서로 기능하며,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무는 중시되나 '개인의 자율성'은 중시되지 않았다. 또 여성과 남성은 돌봄과 생계부양이라는 분리된 성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개인주의적인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사항이 됨으로써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 무자녀 가족의 증가, 초혼과 초산 연령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기대의 차이이다. 결혼의 이유를 가족과 친족관계의 확대, 가족 의무의 수행, 친밀성 유지에 두기 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과 가족관계를 수용하는 정도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 식의 전통적 가족관계가 이제는 별거와 이혼, 독신가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변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 변화뿐 아니라 한 부모 가구, 독신 가구, 노부부 단독가구 및 이혼가정의 증가한 점 등이 여성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의 확산은 가족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문의 이익보다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집단의 의무보다는 개인적 소신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의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이다. 여성들은 이제 자율성과 경쟁력을 추구

하기 위해 가족 의무를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가사와 육아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김으로써 유지되어 온 한국의 가족주의는 한국의 가족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3. 가족 가치관의 변화: "여인 천하" 학교서 시작된다

21세기의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 구성의 최소 미시단위인 가족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통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제도가 자리를 비운 곳에는 신장된 지위로 자기실현을 이룬 신세대 여성들의 성취 보고서가 대신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의식 변화와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과 맞물린 효과가 크다.

교육과 훈련 기회 증가로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지식과 정보에서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위의 상승은 물론 이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꾀하는 기회를 추구하게 되었다.

4. 개인주의의 확산이 초래한 미해결의 가족 과제

사회 변화가 초래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 기능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실에서 해결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대체적 서비스 및 가족복지서비스의 총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현대가족은 산업사회의 비인간적인 영향

력들로부터 가족원을 보호하는 정서적 충족을 그 주요역할로 규정짓는다. 따라서 가족이 감당하여야 할 많은 기능의 원천이 상호의존에 기반을 둔 부부의 협력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치료,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 기법과 다양한 치료기법의 개발은 물론 개별가족의 요구에 맞는 치료와 훈련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가정의 돌봄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요보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요구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가출 청소년, 학대아동에 대해서도 재활, 치료, 예방 등 사회통합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자녀양육 책임 등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 속에서 현대의 부부는 가족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혼돈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혼 뿐 아니라 재혼가족에서 야기되는 재적응문제에 대한 가족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미래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자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여성들이 더 이상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나 법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자기 실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 수준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III. 맺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전통적 가족주의가 표방하

는 가치관을 차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기성세대와 서구적 개인주의 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신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사회와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재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평가는 국가가 구축하는 복지제도가 거두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주의 확산이 가족정책 부문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현상으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 가족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이 노인인구 증가와 결합하면 사회보장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출산율 저하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측면과 자식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관련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정책은 아동수당 지원과 육아 관련 서비스의 확충이다.

개인주의가 그 세력을 확장하면 가족주의가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양자관계를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오히려 가족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복지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개인책임 강화와 국가역할 강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반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체계의 구축과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본회가 주최한 '신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05.11.30)'에서 발표된 내용을 일부 발췌함〉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해성 알고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하고 감소화 추진엔 소극적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지난 6월 17일~6월 30일 6대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생과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용기포장재 등에 대한 사용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결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996년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라는 책에서 일부 화학물질이 내분비계의 장애기능을 가져온다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PCB·DDT·기타농약 등의 화학물질이 생체에 흡수될 경우 생화학반응을 일으켜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의 물질이 되어 정상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정자 수 감소, 기형유발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용어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지도

용어 및 인체 유해성 알고 있지만, 10대 응답자 모른다(21.5%)에 많이 답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1.4%로 없다는 응답자 28.6%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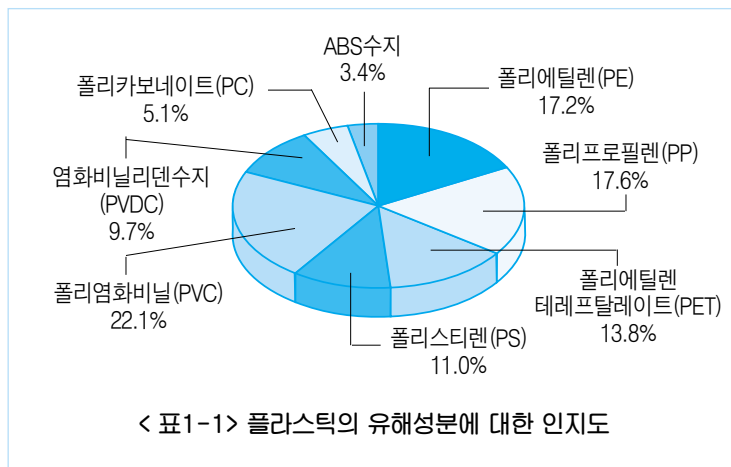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

질이란 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용어를 안다는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73.2%로 남자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50대(55.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10대에서는 안다(5.3%)는 응답자보다 모른다(21.5%)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81.9%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인체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정자수가 감소된다고 임신부의 경우 태내 아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92.7%로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았다.

◆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제품의 사용실태

세제류와 헤어제품류 등 실제 사용 많고, 비닐류와 플라스틱식기류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출 품목으로 꼽아



확인하지 않는다 26.4%, 반드시 확인한다 12.2 %로 조사되어 포장재질이나 성분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구입시 반드시 포장재질을 살펴봐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컵라면류 19.7%, 반찬류 14.9%, 도시락류 13.3%, 즉석식품류 11.2% 순으로 나타나 매스컴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 컵라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1) 플라스틱 제품류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플라스틱재질(85.0%)에 대한 불안감 크지만, 구입 시 재질 확인 안 해

식품포장재 재질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질로는 플라스틱류(합성수지류)가 85.0%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플라스틱 제품 구입시 재질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8.9%와 '가끔 확인한다' 39.7%로 플라스틱 제품류에 대한 확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 재질<표 1-1>로는 폴리염화비닐(PVC) 22.1%로 가장 높았고, 폴리프로필렌(PP) 17.6% 순으로 염화비닐계(PVC, PVDC)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불안감(31.9%)이 가장 높았다.

◆ 제품 구입시 포장재질 또는 성분함량 표시 체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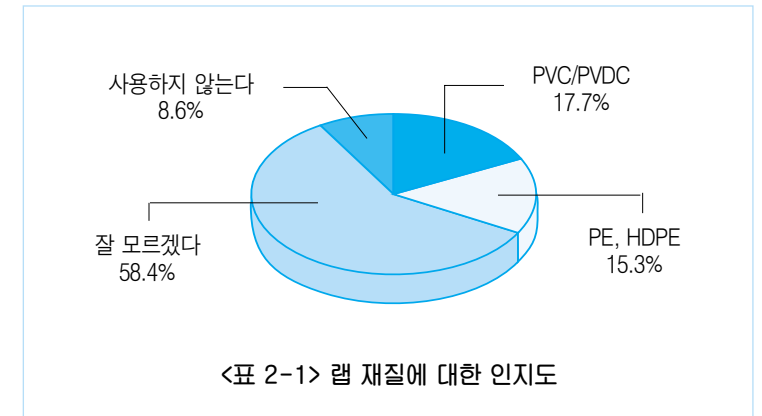
확인하는 소비자 적고, 컵라면류의 포장재질에 대한 불안감 가장 높아

물품 구입시 포장재질이나 성분표시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확인한다 40.2%, 전혀

(2) 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응답자 58.4%가 랩의 재질 모르고 있고, 염화비닐계(17.7%) 랩 여전히 사용해

어느 소재의 랩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는 응답자가 58.4%로 가장 높았고, 염화비닐계 (PVC, PVDC) 17.7%, 폴리에틸렌계 (PE, HDPE) 15.3% 순이어서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랩의 재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이렇듯 염화비닐계 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17.7%)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품의 안전성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불신감(88.8%) 커 안전성 확보 시급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는 농수산물에는 수입 야채 및 과일류 65.6%로 가장 높았고, 수입 축산물 15.9%, 국내 야채 및 과일류 7.9% 순이었다.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불신감(88.8%)이 매우 높게 나타나 수입농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보 습득 경로

대부분 TV(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스컴 통해 정보 습득해

◆ 내분비계 장애물질 감소와 대책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소비행태 지향해야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감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한다' 39.1%,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습관화한다' 23.2%, '기업이나 정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대체물질 개발에 투자한다' 13.0%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마치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기업·소비자 모두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인식 및 친환경적인 소비행태만이 이러한 유해물질을 감소화 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부장>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및 용품 가격 공개 꺼리고, 가격차이 심하게 나타나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완관련 전문서비스 및 애견용품 등에 대한 가격정보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회 경북도지부에서는 지난 10월 18일~19일 구미시내 22개 동물병원과 애완견판매 센터를 중심으로 애완 관련 서비스 및 용품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수의사 진료

중성화수술비 3배 차이 나는 곳 있어

조사결과 조사대상 동물병원 7개소 중 DHPPL백신은 15,000원 6곳(86%), 9,000원 1곳(14%)으로 조사되었다. 컨넬코프백신, 코로나장염, 광견병백신의 경우 10,000원 6곳(86%), 9,000원 1곳(14%)으로 조사되었다. 중성화수술 수컷의 경우 조사대상 7개소 중 80,000원 6곳(86%), 나머지 1곳(14%)은 30,000원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성화수술 암컷의 경우 180,000원 6곳(86%), 150,000원 1곳(14%)으로 조사되었다.

◆ 사 료

가격표시 없고 판매 가격에 대한 무응답 많아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22개소 중 스몰퍼피는 3곳(13.6%)에서 판매가 되었으며 가격은 15,000원에서 1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스몰어덜트는 16,000원 1곳(4.5%), 무응답 21곳(95.5%)으로 조사되었다. 시니어, 라이트

어덜트의 경우는 22개소 모두 판매가 되지 않았다. 퍼피미니 1.36kg는 조사대상 22개소 중 10,000원 4곳(18.2%), 무응답 18곳(81.8%)으로 조사되었고, 퍼피미니 2kg는 14,000원 1곳(4.5%), 무응답 21곳(95.5%)으로 조사되었다.

어덜트(MAINTENANC EMINI)는 2곳(9.1%)에서 판매되고 10,000원에서 14,000을 받고 있었으며, 무응답 20곳(90.9%)으로 조사되었다.

어덜트(CHICKEN&RICE)는 1곳(4.5%)에서 14,000원, 무응답 21곳(95.5%)으로 조사되었다.

ANG퍼피는 조사대상 22개소 중 12곳(54.5%)에서 동일하게 10,000원을 받았고, 무응답 10곳(45.5%)으로 조사되었다. ANG홀리스틱은 10,000원 11곳(50%), 무응답 11곳(50%)으로 조사되었다.

프로플랜 강아지용(1.5kg)은 10,000원 8곳(36.4%), 8,000원 3곳(13.6%), 6,850원 1곳(4.5%), 무응답 10곳(45.5%)으로 조사되었다.

제로니 강아지 소형견용(1.5kg)은 10,000원 5곳(22.7%), 9,000원 1곳(4.5%), 8,000원 2곳

(9.1%)이며, 나머지 14곳(63.6%)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사료는 품목에 따라 동일 가격을 받는 곳이 많았지만, 가격차가 40%가 되는 품목(어덜트(MAINTENANC EMINI)도 있어 비교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 겹

대부분 판매가격에 대한 무응답 80% 넘어

개겹 가격은 전체조사대상 22개소 중 베스트 퍼피밀키츄(소5개) 1,000원 1곳(4.5%), 2,000원 2곳(9.1%), 나머지 19곳(86.4%)은 무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도그츄즈(대1개)는 1,000원 1곳(4.5%), 3,000원 1곳(4.5%), 4,000원 1곳(4.5%), 무응답 19곳(86.4%)으로 조사되었다.

클린원(우유겹 소4개)는 1,000원 2곳(9.1%), 2,000원 2곳(9.1%)이며, 무응답 18곳(81.8%)으로 조사되었다.

빠빠로(밀크본 중3개)는 4곳(18.2%)에서 2,000원을 받았으며 무응답 18곳(81.8%)으로 조사되었다.

◆ 미용서비스

미용센터마다 가격 다양하고 차이 심해

전체미용은 가위커트와 기계커트로 나눌 수 있으며, 부분미용과 부분염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가위커트의 경우 최저가 15,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가격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계커트는 10,000원에서 최고 25,000원으

로 가격차가 나타났다.

• 부분미용에는 대부분 손톱, 발톱, 콧구멍, 귓속 등의 손질을 하는 것으로 견종의 구분에 따라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염색은 꼬리와 귀, 머리등 부분을 하는데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용서비스 가격 역시 업소마다 가격차가 심해 사전 가격 비교를 통해 미용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욕용품

상품에 따라 20% 가격 차이 보여

목욕용품은 조사대상 용품(헬시퍼피샴푸, 헬시화이트샴푸, 헬시샴푸린스, 구루머퍼피샴푸, 퍼폼샴푸린스, 퍼폼샴푸린스) 모두가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로 20%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애완동물 용품 가격이 다른 여타 물건들의 가격에 비해 비싼 이유는 소비 물량이 다른 여타의 물건들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지만 수입회사들이 자기마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도 용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용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과 투명한 가격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판매점을 이용하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간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소리

컴퓨터 A/S 동일증상 3회 이상으로 인한 문제

내용 임 근식(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씨는 2004년 12월 14일 홈플러스 매장에서 삼보컴퓨터를 159만원에 구입하였는데 2005년 9월 10일 고장, A/S기사가 하자 수리 해 주었기에 믿고 썼는데 9월 28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A/S기사가 와서 보더니 또 그 기능이 안 되어 이젠 갖고 가서 하나하나 짚어 가며 봐야 알 것이라며 가서 수리 해왔으나 10월 12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교체1번 받았는데 사용 중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10월 22일 오전에 기사가 다녀갔다.

10월 28일 마지막하자로 A/S받고나서 더 이상 못 참겠기에 같은 하자로 손해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A/S 접수하라면서 3회 이상 동일 증상으로 문제 생기면 제품교환 및 환불이 된다고 했는데 본사 직원과 통화 할 때는 다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환불 받고 싶다.

처리 삼보고객 상담실에 조회확인 결과 10월 12일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1번 교체했고 A/S 6회로 동일부위 하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교환이나 환불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현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5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 제품구입 당시의 영

수증 제시하면 환급 처리 하여 주기로 하고 11월 17일 159만원 전액 계좌입금 처리되었다.

학습지 배송이 정확하게 안 되어 중도해지 요구

내용 조 정국(울산시 동구 화정동)씨는 자녀에게 2005년 1월 16일 이키 아이 CD 학습지를 3년으로 계약 체결 하였다.

단독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살다보니 학습지 배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7회 정도를 반송하였으나 계속 중간 중간 제때에 배송이 안 되어 7월 4일 해지 요청 후 업체와 협의하여 위약금과 교재비를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으나 소비자 사정으로 대금을 완납치 못했는데, 업체 위약금을 추가하여 문의를 해왔다.

처리 교재비 총금액 337,500원 중 소비자 20,000원 지급으로 317,500원을 청구하였고 위약금 128,250원과 사은품은 미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기로 하고 위약금 445,750원이라 했으나 부정확한 배송을 감안 본회 울산시 지부에서 중재하여 7월 4일까지의 금액 33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약 합의 통고서를 받았다.

장기재고차량, 할인가로 구입 하고보니 사고 차량

내용 강 정규(경북 구미시 상모동)씨는 2005년 2월 25일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스타렉스 리무진 65무 3474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04년 장기 재고 차량이라 800만원을 할인 받았다. 사용도중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나서 운전석 부분이 파

손되었다.

정비공장에 수리하러 갔다가 본 차량이 사고가 났던 차량이란 것을 확인하였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도 판금도색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판매 당시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고객센터에 이의제기 했으나 답변인즉 600만원 할인가를 판금도색했기 때문에 800만원 할인해 주었으니 그냥 타라고 한다고 불만 제기한다.

처리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구입 시 장기 재고 차량이라고만 하여 계약을 했고 사고차량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므로 현대 고객센터와 중재 요청한바 고객센터에서는 차량 출고 시 일반 부가기능특장차로써 위치 선정 과정중 문제가 발생하여 판금도색은 했으나 사고차량은 아니며 고의성은 없었으나 고지하지 않은 과실 인정하고 소비자와 합의조정으로 10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새로 구입한 외제냉장고 한 달만에 하자 발생, 부품교체에 1~2달 기다리라고 한다

내용 최현정(대전시서구 내동)씨는 2005년 9월 24일에 대전롯데백화점에서 월풀(Whirl-Pool)냉장고를 구매 한 후 10월 16일부터 처음 사용하였다.

사용 중 냉장기능이 약하고 냉장실에 서리가 생기는 하자가 있어 업체에 문의하니 행주로 닦아 사용하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A/S를 신청하였다.

10월 28일 A/S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해 보더니 얼음이 빠져 나오는 안쪽부분이 깨어져 있어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 하면서 부품교체하려면 신제품이라 1~2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리방법 같다.

처리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이고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인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새 제품교환이 정당하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받는 것으로 처리 하였다.

옥션에서 구매한 청소기 A/S 문제

내용 이 대성(대전시 서구 복수동)씨는 2005년 7월에 옥션에서 홈파워 블루 스팀청소기를 구매하였다. 사용 중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A/S를 신청하니 옥션에서 구매한 제품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데 황당하다.

처리 옥션에서 판매한 판매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인 명의 도용 후 게임머니 결제

내용 이은주(제주시 연동)씨는 본인 휴대폰으로 갑자기 승인번호가 문자로 몇 번씩 와서 무시하고 삭제하였는데 이후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 후 KTF통신사로 연락했으나, 확인 결과 이미 결제가 되어 다음 달에 요금내역서에 지불될 예정이라 한다.

해당업체(모빌리언스)로 연락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요청한다.

처리 모빌리언스 상담원과 통화, 2005년 11월 14일 오후 11시 10만원 결제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 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게임” 측에 FAX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소 요청서를 보내고 본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취소처리 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유·무선 통신 관련 주요 시한 알고 계시나요?

- 부당요금, 시한 넘기면 배상절차 복잡해 -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부가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작년 같은 기간의 5배가량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에 통신부가서비스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혹은 무료 콘텐츠라고 권유해 사용했다가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신부가서비스 부당청구 사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요금이 계속 납부되었다. 이동통신사가 유료 전환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 시 무료 또는 일정기간 대리점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후 요금이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추가로 가입된 경우가 있다.

유선전화 피해 유형을 보면,

텔레마케터가 착신전환, 통화중 대기, 발신자 표시, 멜로디, 평생번호 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해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유·무선 통신 관련 주요 시한

피해 소지자 중에 2~3년 이상 요금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당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한을 넘기게 되면 배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신관련 주요 시한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당일 해지 뒤 본인 착오를 이유로 이동 통신업체에 재가입하는 경우

통신업계 관행에 따른 기간으로 약관에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루라고 지나면 가입비를 새로 받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4일 이내 통화 품질을 이유로 이동통신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번호 이동 후 취소 가능 기간

신규 가입한 이동통신 소비자는 통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내에는 이동통신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단말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도 14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통신업체를 옮겼을 때도 14일 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14일 내에 취소한다면 번호이동 시 납입한 이동수수료(1100원), 가입비(3만원) 환불 및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도 환불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유·무선 통신 부당요금 청구 이의접수 기간 (일부 유선업체 제외)

부당하게 쓰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6개월'의 시한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유·무선 통신업체들 대부분이 약관을 통해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스캠 피해도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기간 경과 내에는 통화기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경과 후에는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업체들이 통화 내용 등 통화정보를 보존하는 기간이 현행법에서 이동 국제전화의 경우 1년, 시내 사회 전화의 경우 6개월

간 통화정보를 보존토록 하기 때문에 부당요금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는 것이다.

1년 통신업체 마일리지 갱신 기간

1년 마다 갱신·소멸된다.

◆피해 배상 및 예방

가입여부 명확히 표현, 청구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필요

통신요금이나 제품 구입 후 정해진 시한에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도 적고 쉽게 처리되지만, 시한을 넘겨 이의제기를 할 경우 배상자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상절차가 복잡해 고생을 하기 쉽다.

부당요금 청구의 경우, 6개월 시한을 넘겨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통신업체 자체 처리보다는 소비자보호원·통신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6개월간 통화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통신업체가 6개월이 지나면 통화정보를 폐기하기 때문에 외부기간이 개입해 양측 증언 및 증거조사를 벌여 피해가 입증되면 보통 양측이 보상 합의를 해 처리한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절차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그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 무엇보다도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시 가입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당요금에 대해선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및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 내용 참조)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행위 조심

- 대학입시철을 전후하여 청소년들의 피해사례 급증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철을 전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학 교재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수칙을 알아본다.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각종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 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5년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가 118건을 차지했다.

이에 2005년 7월 공정위는 교육교재 등의 출판물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피해유형 및 피해사례

◆ 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하여 구입을 강요

미성년자인 서모씨는 전화로 영어잡지 구독을 권유받고 샘플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하

였으나, 며칠 후 일방적으로 잡지와 대금 납부지로용지가 배송되어 다음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8주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영문 잡지인 타임지를 정기구독 해보겠냐고 물어서 부모님께 여쭙보겠다고 대답하니 제1권을 무료 샘플로 보고 결정하라고 하여 주소를 불러 주었다. 이 후 매달 잡지와 청구서까지 오고 있다.

계약철회요구서를 보냈으나, 우편물 받은 게 확인이 안 되고 한권 먼저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 이벤트, 당첨 등을 빙자하여 계약체결 유도

2005년 1월 ○○○사의 부천시지사 김모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시대상으로 이번 해 05학번이 되는 친구들 중 몇 명을 추천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며 뉴스위크지를 3,600원에 볼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함.

충동구매와 4년치 요금에 대한 4개월 분할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바로 전화를 해 해약

을 요구했으나, 한번 등록하면 절대로 해약이 안 된다고 하였다.

◆ 설문조사원으로 위장하여 계약체결 유도

2005년 4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설문조사를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함. 설문조사를 하다가 토익교재를 소개하며 할부금이 2개월에 36,900원이며 오늘 10명에게만 이 교재를 판매한다며 마지막 10번째라며 구입을 유도하여 교재를 구입했다.

한달 후 전화가 와서 2개월에 36,900원이 아닌 한달에 36,900원이라며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한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했다.

피해예방수칙

1.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입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지 말자.

2.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따라서,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의사를 구두나 유선 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판매자나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률조항, 알아두세요!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다. 만 20세 미만의 계약인 경우 부모 동意的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낸 경우, 대금 낼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면 된다.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용 일부 발췌)



‘조류인플루엔자(AI, 조류독감)’, 알고 예방합시다

최근 중국에서도 4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감염사례가 확인돼 또다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는 아니지만, 정부가 겨울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체감염에 대비한 대시민 행동요령을 발표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리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HA는 15종이 있고 NA는 9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15 \times 9 = 135$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될까?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며 특히 오염된 대변이 다시 구강을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될 수 있을까?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잘 일으키는 H5

형이나 H7형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드물게 사람에서도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1 인플루엔자의 경우 1997년과 2003년 홍콩에서, 2004년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인체감염을 일으켜 감염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은 모두 양계업 종사자와 같이 닭이나 오리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거나 닭이나 오리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멸하므로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38℃ 이상으로 열이 나면서,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상기도 감염(감기)이나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독감)와 비

슷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조류인플루엔자를 의심하기보다는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한다.

해마다 접종하는 독감(사람 인플루엔자) 백신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사람 간 전파력이 있어서 매년 우리에게 독감을 유행시킨다. 독감 백신은 이러한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독감에 걸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독감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에, 현재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인체에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아직까지는 사람 간 전파력이 약해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독감 유행시기인 동절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독감에 걸린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도 동시에 감염이 된다면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상호 유전자 교환을 하게 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능력이 있는 능력을 획득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러한 사람 간 전파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예방법 중의 하나이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은 없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상품화된 것은 없다. 다만, 일반 독감 즉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약제 중에서 타미플루(경구복용)와 리렌자(흡입용)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약은 조류인플루엔자나 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치료제이지 건강할 때 복용해서 효과를 보는 예방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소에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지만 일반 독감 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개인 건강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손씻기와 양치질 등을 철저히 한다.

둘째, 개인의 면역기능 증강을 위해 흡연과 지나친 음주는 자제한다.

셋째, 풍부한 영양식과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넷째, 유행지역의 방문 여행객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와의 접촉은 피하고, 귀국시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공·항만검역소에 신고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사이트에서 내용 발췌>

휴대폰 결제 이달 말부터 본격화 ... 신용카드 대신에 요금 결제하세요!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결제 인프라를 호환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변경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휴대폰 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바일 IC칩 카드’ 서비스에 관한 제휴식을 갖고 휴대폰 결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적외선 방식 대신 주파수 방식의 ‘모바일 터치’ 기술을 채택해 호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모바일 터치 기술이 적용된 결제단말기(동글)에 대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휴대폰의 ‘모바일 칩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이통 3사는 삼성카드와 제휴, 12월 말부터 ‘모바일 IC칩 카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용 휴대폰(뱅크온, 모네타폰, K뱅크폰)을 가지고 있어

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휴대폰은 현재 650만 여대가 보급돼 있다.

이통 3사는 내년 말까지 전용 단말기 보급대수가 10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칩 카드 발급 신청은 12월 말부터 전국 삼성카드 지점을 방문하거나 삼성카드나 이통 3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별도의 발급 비용은 없다.

이통 3사는 모바일 칩 카드 서비스를 여러 신용카드 회사로 확대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통 3사가 개별적으로 확보한 가맹점에서만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이통사가 확보한 가맹점에서든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통 3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 칩을 내장한 휴대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며 “결제기가 호환되고 방식이 간편해지면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교통사고 위자료 내년 4월부터 최고 79% 인상돼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가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상해 등급별로 지금보다 작게는 11%, 최고 79%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교통비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입원자들의 식비는 하루 1만1천580원에서 1만3천110원으로 13~60%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

비의 10~15%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화장실 청소용 브러시에 “세균 8억 마리”

집안 화장실 청소용 브러시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일본 기타사토 환경과학센터의 조사에서 지적됐다.

센터 측은 화장실 청소 브러시 한 개당 최고 8억4천만 개의 세균과 3백30만 개의 곰팡이가 붙어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화장실 브러시로 변기 안을 청소할 때 세균이 밖으로 튀어 바닥 깔개와 수건 등에서 번식하게 되며, 체내로 들어오면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센터 연구원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브러시를 햇빛에 소독하고 충분히 말려 사용하거나,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금연서비스 확대 실시- 휴대전화로 담배 끊으세요!

휴대전화를 통한 무료 금연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조시 흡연예방과 보다 접근성 높은 대국민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금연서비스를 확대하기로 11월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KTF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모바일 금연서비스가 11월 11일 SK텔레콤에서, 12월에는 LG텔레콤을 통해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금연포털사이트(<http://nosmokeguide.hp.go.kr>)에 들어가 인터넷 금연 교육프로그램인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가습기 3대중 1대 병원균 ‘특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3대 중 1대가 병원성 세균이나 알레르기성 세균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과 수도권 53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의 물통과 진동자 부분에서 표본을 채취해 시험한 결과 24.5%인 13대에서 노약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녹농균이나 폐렴간균 등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 또 17%인 9대에서는 알레르기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

가습기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주부 203명을 설문조사해 보니 71.1%는 일주일이나 그 이상에 한번씩만 세척하고 40.9%는 이틀 이상에 한 번씩만 물을 간다고 답했다.

소비자 보호원은 항상 물에 담겨져 있어 세균의 번식이 쉽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교환하고 이틀마다 세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물통 뿐 아니라 진동자 부분을 부드러운 천이나 솔로 모두 잘 닦아줘야하고 1주일에 한번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세척이 귀찮을 경우는 차라리 젖은 옷을 걸거나 실내 화초에 물을 많이 주는 등 자연 가습을 하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해 좋다고 덧붙였다.

카레 주성분 '강황' 위장보호에 탁월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姜黃)이 위장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경태 교수와 김 교수 연구실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뉴로넥스(대표 김동찬) 연구팀은 강황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조절,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11월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국제약리학회지' (BPB : Biological & Pharmaceutical Bulletin) 12월호에 게재된다고 대학측이 밝혔다.

연구팀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이를 분해하기 위하여 위산이 분비되는데 이때 위산이 주변의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위점액도 같이 분비된다"면서 "그러나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돼 적절한 균형이 깨질 경우 위궤양, 위암 등 위 질환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강황 성분 중 에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을 이용, 이 성분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히스타민 (Histamine)

2 수용체'를 억제시키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강황(姜黃)은 '생강'과의 한해살이 풀로 '울금'이라고도 하며 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천연물질 성분에 의한 히스타민 2 수용체와 세포신호전달물질(cAMP) 생성→단백질인산화효소 A(Protein Kinase A) 활성화→소화를 위한 위산의 위장관 내부 분비'로 이어지는 위산 분비조절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돼 부작용이 없는 위장 관련 천연 신약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커피-홍차, 간 손상 위험 감소시켜

커피와 홍차가 만성 간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당뇨병·소화·신장 질환연구소의 콘스탄틴 박사는 미국위장병학회 학술지 '위장병학(Gastroenter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커피나 홍차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하루 1잔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과

음, 과체중, 철분섭취 과다에 의한 만성적인 간 손상 위험이 50%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간 손상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를 박사는 전국보건영양조사(NHANES)에 참가한 9천849명의 평균 19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효과는 카페인에 그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결과는 만성 간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커피와 홍차가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질환의 진행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술1~2잔, 비만해소에 도움

하루에 1~2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8200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매일 한 잔의 술을 즐

기는 사람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만 확률이 54%나 낮았다. 하루에 두 잔이나 일주일에 몇 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 역시 금주자들에 비해 비만 위험도가 낮았다.

반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폭음자들은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4잔 또는 그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주자에 비해 비만 위험이 46%나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BMC 공중위생 저널'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심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는 그 동안 많이 발표됐지만, 이처럼 음주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소비자 73% "美쇠고기 안 사먹겠다" 답해

국내 소비자의 73%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사먹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시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8%는 '광우병 발생전보다 적게 소비하겠다'고 대답했고 '광우병 발생전과 동일하게 소비하겠다'와 '광우병 발생 전보다 많이 소비하겠다'는 각각 6%와 0.2%에 불과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89.3%)이었으며 '국내 쇠고기 가격이 높아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6%는 수입 쇠고기가 한우에 비해 '가격이 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맛에 대해서는 76.3%가 한우에 비해 '나쁘다'고 답했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80.9%에 달했다. 품질 역시 한우와 비교해 '나쁘다'란 응답이 66.1%나 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자들은 한우가 수입 쇠고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한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

입 재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예방에 효과 있는 감귤, 섭취 15도에 보관해야

톡톡 터지는 감귤 과육에 들어 있는 노란색 바탕이 되는 '베타 클립토크산틴'이라는 색소는 암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본 농수산성과 교토의과대학 연구팀은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색소와 비교해 베타클립토크산틴의 바이러스 저지효과가 무려 5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감귤에는 또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는 비타민C, 비타민E와 펙틴 등 섬유질이 풍부해 장을 깨끗이 하는데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이런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귤은 냉장고 등 너무 차가운데 두면 달콤한 맛이 도망간다. 섭씨 15도쯤 되는 곳에 두는 것이 먹기에도 좋고 영양 손실도 적다.

모유 먹인 여성, 당뇨병 위험 낮아

아기에게 모유를 오래 먹인 여성일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여성 15만 7천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여성은 마지막 출산 후 15년 사이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유를 먹인 전체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당뇨병 위험도 약 15%씩 더 낮아졌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모유 수유가 대사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여성 2명중 1명 일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데다 경제·사회적 이유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여성이 갈수록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지난 1~10월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1%를 기록해 남은 2개월 동안 큰 이변

이 없는 한 올해 연간으로 5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여성 2명 중 한 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평균인 986만명 가운데 취업자는 951만명, 실업자는 35만명 이었고 전업주부와 학생 등을 의미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981만명이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년 37.0%에서 73년 (41.5%) 40%대로 올라선 이후 80년 42.8%, 90년 47.0%, 2000년 48.6%, 2004년 49.8%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부부폭력' 유형 논란

여성가족부가 '부부폭력 성향 체크 리스트'를 개발해 점수대별 유형 분류를 제시한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부가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폭력, 언어·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을 10 문항으로 제시해 부부간의 가정폭력 성향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부폭력 성향 체크 리스트를 8일 발표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인물과 동화속 인물을 활용해 문항별 합산 점수에 따라 5개의 남녀 유형을 제시했다"는게 여성가족부의 설명.

여성가족부는 "대화로 합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형은 '제갈공명형', 가벼운 정신적 폭력은 '햄릿형', 심한 정신적 폭력은 '놀부형',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체적 폭력은 '변학도형', 심한 신체적 폭력은 '히틀러형'"으로 분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배우자나 본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쉽게 감지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성평등에 입각해 여성 인물 유형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점수에 따라 남성의 유형 분류 중 '제갈공명형'에 해당되는 '신사임당형'을 1순위로 놓고 '백설공주형', '팔귀형', '뽕터어멈형', '장희빈형' 등의 순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제시된 인물 유형에 대한 시각이 다양각색인데다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너무 쉽게 희화화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다"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유형 분류가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식 개선사업으로 부부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쉽게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맡은 홍보 대행사, 전문기관과 문항, 유형 분류를 검토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중 야근하면 조산아 출산 위험

임신 여성이 야근을 하면 조산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임신 7개월까지 직장을 다닌 여성 천9백 명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어느 시점에서든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근한 적이 있는 여성은 주간 근무 여성보다 조산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 3개월 이전에 야근을 한 여성은 낮 시간에 근무한 여성에 비해 조산율이 50%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야근을 하면 '생체시계'가 혼란을 일으켜 자궁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 직장인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많아

여성 직장인 10명 중에 5명은 회식 도중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50.6%로 가장 많았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446명을 대상으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4.6%가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17.2%인데 반해 여성은 54.1%로 여성의 성희롱 경험이 남성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적인 야한 농담' 22.8%, '외모, 몸매 등에 대한 비하 발언' 12.3% 등의 순이었다. 또 성희롱을 가하는 상대방은 '직장상사'가 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및 담당자가 있는 곳은 14.6%뿐이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24.7%에 불과했다.



가습기, 물 매일 갈아주세요!

겨울철이 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런 건조한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쉽게 찾게 되는 것이 가습기인데, 가습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의 올바른 사용 요령을 알아보자.

가습기의 종류

종류에 따라 장단점 달라 기호에 맞게 구매해야

현재까지 전기료나 제품이 저렴하면서 분무 방식이 다양하고 세균도 안 생기는 가습기는 없다.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초음파식은 전기의 초음파를 이용해 물을 순간적으로 증가시켜 차가운 수증기를 만들어낸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료도 적게 드는 데 비해 세균이 잘 생겨 청소를 꼼꼼하게 해 줘야 한다. 또한 차가운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가열식은 전열선에 의해 물을 가열시켜 뜨거운 수증기를 발산하는 방식으로 물을 끓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은 덜 하지만 전기료가 초음파식의 6배정도 많이 나오고, 뜨거운 습기 때문에 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복합식은 분사량이 많은 초음파식과 물을 끓여서 분사하는 가열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 소비자 호응이 좋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고 전기료가 초음파식보다 2배 정도 많이 나온다.

가습기 선택 시, 이런 점 살펴보세요!

● 청소하기 쉬운가?

가습기 분리되는 위치 낮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선택해야

가습기는 자주 청소해야 하므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가습기가 분리되는 위치가 낮으면 청소하기가 용이하다. 분리부가 위에 있는 경우 손을 넣어 닦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구입할 때는 물통, 뚜껑, 물이 고이는 표면인 가습부 등 가습기를 직접 분리해 청소가 쉬운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

자주 물을 갈아주고 청소해야 하므로 물통의 입구가 넓은 것을 선택하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모양인지 살펴본다.

● 안정감이 있는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제품 골라야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쁜 것보다는 지나다니다가 또는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건드렸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가?

노약자와 유아에게 따뜻한 가습 가능한 모델이 좋아

일반 성인의 경우 작동이나 청소의 편리성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저항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는 따뜻한 가습이 가능한 가열식이나 복합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찬습기는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나 감기 환자 등의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사용 요령 및 관리법

① 벽면 중앙이나 방 가운데 사람과 2~3m 떨어진 곳에 두어라

가습기는 벽면 중앙이나 방 가운데 수증기가 잘 퍼질 수 있는 위치에 둔다. 가능하다면 사람의 코와의 거리가 최소 2~3m 이상 떨어진 곳에 놓는 것이 좋다. 가습기를 켤 때 인체와 너무 가까우면 굵고 차가운 수분입자가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가습이 되도록 한다.

② 물은 매일 갈아주고, 남은 물 무조건 버려라!

가습기 사용 시 가장 신경을 써야할 점은 무엇보다 물을 자주 갈아주고 청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수된 물이 좋지만 수도물을 사용할 때는 하루 정도 불순물을 가라앉힌 뒤 사용한다. 또는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사용해도 위생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된 물이라도 가습기 안의 물은 하루 이상 뒀을 경우 이미 세균이 번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습기 속에 물이 남아 있어도 하루가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③ 최소한 1~2일에 한 번은 깨끗이 청소하자!

물통은 연성세제(또는 베이킹소다)로 자주 청소해야 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자칫 세제 찌꺼기가 남아 가습기를 통해 수증기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주변부는 부드러운 천과 솔을 이용해 꼼꼼히 닦아야 한다. 이때 송풍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습기를 보관할 때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건조시킨 후 보관하도록 한다.

④ 실내 가습 적당히 조절하고 실내 공기 환기시키자!

가습기를 계속 켜놓고 실내를 축축하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실내습도가 높아지면 건강한 사람도 경미한 감기나 폐렴 등 가습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엔 실내습도가 50%가 넘지 않도록, 감기환자의 경우 45%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 방안에 습도계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또한 가습기를 트는 동안에는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준다. ■

운수대통

어느

날부터가 나는 내 꿈을 종교처럼 여기는 신봉자가 되어 있었다.

전날 밤 꿈이 재수 없는 꿈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꿈쩍 않는다는 재수 좋은 길몽이면 로또 복권을 사든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든가하면서 그 꿈에 얽매어 사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내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길몽과 흉몽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긴 했다.

또 죽은 아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날도 아내는 예외 없이 꿈자리가 사나우니 하루 쉬는 게 어떻겠느냐며 꿈 타령이었다.

“여보, 오늘은 제발 내 말 좀 들어 줘.”

“또 꿈 이야기야?”

“그렇기는 한데 오늘은 진짜란 말이야. 절대 일 나가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언제 돈 벌어서 집 넓혀가냐?”

“개인택시 좋다는 게 뭐야? 그까짓 집 안 넓히면 어때? 이 집으로도 충분한데. 당신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아내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였다. 딴 기사들은 돈 적게 벌여 온다고 바가지 박박 긁어대는 부인네 등쌀에 질 수가 없다고들 심한해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찌 된 심판인지 ‘과로하지 마라’, ‘기분 안 좋으면 핸들 놓고 그냥 놀아라’, ‘피곤한 것 같으면 집으로 곧장 들어와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남편인 나를 기죽게 하지 않으려고 내 앞에서 돈 타령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막상 본인은 대형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공휴일 외에는 단 하루도 쉼 없는 사람이었다.

“또 무슨 꿈을 꿔는데 그러는 거야?”

“진짜 재수 없는 꿈이야. 꿈에 애는 근심이거든.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거야. 그래 어서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이랑 애들 챙겨서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애 새끼들이 나를 잡고는 놓질 않는 거야. 과자를 한 봉지씩 안고 와서는 빨리 계산을 해 달라는 거야. 나는 마음이 급해서 계산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돌아서서 슈퍼를 나오려 하는데 애들이 양쪽에서 내 다리를 잡고 늘어져서 발을 뗄 수가 없지 뭐야. 사람들은 다들 뛰어가고 난린데 나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애들을 잡아떼려고 몸부림치다가 깰다니까. 겨우 아장아장 걸을 정도의 작은 사내 아기들인데 힘이 어찌나 세든지 잠을 깨니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서 한참을 움직이지도 못했어. 꿈쩍했다니까요.”

그날 나는 언제나 하듯이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택시를 몰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지라 ‘오늘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주지.’ 하다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내 짐작대로 집을 나오면서부터 천안 가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시작하여 분당까지 올라오는 손님도 태워 빈 차를 면했고 시내에서도

매번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를 반복하면서 손님을 태웠다.

“별 일 없어요?”

“그럼. 당신은?”

“나도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친절함 점원으로 뽑혀서 점장님이 포상금을 주셨어요.”

“거봐. 이제 그놈의 꿈 타령 그만 좀 해.”

“알았어요. 운수대통 할 꿈이었나봐.”

점심때 전화를 걸어 온 아내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눈 것이 영원한 이별일 줄이야.

“오랜만에 나 대박 터졌어. 일찍 들어갈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축하주나 한 잔 하게 안주거리나 사들고 와.”

그날 아내는 소주 2병과 삼겹살에 상치, 깻잎, 마늘, 풋고추 등 자기네 슈퍼마켓에서 사들고 들어오던 장바구니를 길거리에 내던진 채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다. 코앞에 다가 온 버스를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는 순간 뒤에서 출발하려던 버스가 오토바이 때문에 앞 버스를 받았고 앞 버스는 밀려 나가면서 아내를 받았다. 아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고 했다. 모처럼 대박 터졌다는 남편과 친절함 영희(아내의 이름)씨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려던 장바구니는 길에 흩어진 채 나뒹굴었고 아내는 천국으로(아마 틀림없이) 갔다. 아내의 꿈은 적중한 것이었다. 내게로 오려는 사람을 사내 아기들이 다리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꿈을 꾸었다더니 그녀는 내게 오려다 오지 못한 것이다. 소주병이 깨어졌듯이 그녀의 다리도 몸도 깨어지고 으스러져 있었다. 아내의 시신을 보고나서 나는 한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길거리에 나뒹굴었을 장바구니와 남편과 한 잔 나누려고 들떠 있었을 아내의 기쁜 마음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장례식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없다.

페인이 되다시피 거의 식음을 전폐한 채 1년을 살았다. 겨우 정신을 차려 아내의 짐들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꿈에 관한 책들이었다. 꿈 해몽에 관련 된 책들이 몇 권이나 되었고 꿈과 정신의학에 관한 책도 있었다. 제일 자주 들여다보던 꿈 해몽 책에는 아내의 깨알 같은 주석이 달려 있기도 했다. 또 책의 어떤 페이지에는 애교처럼 ‘거짓말’이라고 써 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아마 그녀의 상황과 맞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 책을 안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그날 아내의 말대로 일 나가지 말고 쉬었으면 노는 날에 내가 했듯이 슈퍼마켓으로 아내를 마중 나갔을 것이고 그랬으면 아내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의 그 꿈은 흥몽이 분명했다.

그때부터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꿈 해몽 책을 보는 습관이 생겼고 그것을 아내의 계시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다. 운수대통 할 꿈이었다던 아내의 목소리가 언제나 내 귓전에 맴돌고 있다. <노수민 / 작가>



경희대 국어국문과 졸업했고, 1969년 제 12회 경희인 문화상 소설부문 수상으로 등단했다. 1971년 제 13회 경희문화예술상 수상하고, <고독한 파수꾼>으로 1979년 중앙일보 1회 문예대상 장편소설부문을 수상하면서 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그 외 1994년 한겨레 문학상 수상(불바다-일본어 역), 2002년 한국 소설문학상(광대들의 들판에 비는 오지 않는다)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황홀한 城>, <위험한 戀歌>, <아무도 없었던 겨울> 등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달래를 찾습니다>, <미완의 사랑>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조출한 송년 파티 음식



연말이 다가 오면서 여기저기서 연말 모임도 많아진다.
조출한 송년 파티 음식을 준비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자.

캐비어카나페

재료> 붉은색 캐비어 4
큰술, 검은색 캐비어 4큰술,
크래커 1개, 양상추잎 4장, 달걀 2
개, 마요네즈 1/2컵, 레몬 1/2개

〈만드는 법〉

- ① 캐비어를 붉은색, 검은색으로 각각 구입해 레몬즙을 짜서 버무린다.
- ② 달걀은 15분 정도 삶아 완숙으로 준비한다. 삶기 전에 달걀을 몇 번 흔들어주면 달걀 노른자가 달걀 중앙으로 예쁘게 자리 잡힌다. 달걀 껍질을 벗기고 에그 커터로 자른다.
- ③ 크래커 위에 마요네즈를 살짝 바르고 자른 달걀을 얹는다. 양상추는 카나페를 장식하거나, 아래에 깔든가 기호에 맞게 내어 놓는다.
- ④ ③의 크래커 위에 각각의 캐비어를 얹어 접시에 예쁘게 담아 낸다.



로스트치킨

재료> 닭 1마리, 레몬 1개, 버터 100g,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양파 1개, 당근 1개, 셀
러드 1대

〈만드는 법〉

- ① 닭은 깨끗이 씻고 지방을 떼어낸 뒤 반 자른 생 레몬으로 문지른다.
- ② 닭의 안쪽과 바깥에 전체적으로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간을 해 둔다.
- ③ 날개는 뒤로 재껴 고정시키고 다리부분은 실로 묶는다.
- ④ 버터는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한 뒤 솔로 닭의 안팎에 골고루 발라준다.
- ⑤ 오븐 팬에 준비한 채소를



채썰어 깔고 그 위에 닭을 놓고 200도에서 30분 굽는다.

※ 오븐 팬에 채소를 깔아주지 않으면 기름 때문에 연기가 날 수 있으므로 채소를 꼭 깔아 준다.

⑥ 닭 껍질이 노릇하고 바삭한 맛이 나도록 중간 중간 버터를 발라 구워준다.

치커리토마토샐러드

재료> 치커리 80g, 토마토 1
개, 완숙달걀 1개, 잘게 썬
견과류 적당량, 키위소
스(키위 간 것 1/8컵,
꿀 2큰술, 레몬즙 1큰
술, 다진 양파 2큰술, 올
리브유 2큰술, 식초 1/2큰술, 소
금, 후추 약간씩)

〈만드는 법〉

- ① 키위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 후 분량의 재료들을 넣고 골고루 저어 키위드레싱을 만들어 둔다.
- ※ 키위 드레싱 : 잘게 간 키위와 꿀, 레몬즙, 다진 양파, 올리브유, 식초를 섞어 만든다.
- ② 토마토는 끓는 물에 불린 뒤 껍질을 벗겨 0.6cm 두께로 저며 썬다.
- ③ 완숙달걀은 달걀 절단기로 저며 썰고, 치커리는 4cm 길이로 자른다.
- ④ 토마토, 치커리, 달걀을 썰개로 담고 키위 소스를 뿌린다.



⑤ 잘게 썬 견과류를 샐러드 위에 뿌려낸다.

후르츠편치

재료> 오렌지 주스 3컵, 레몬 주스 1/2컵, 백포도주 3
큰술, 설탕시럽 2컵, 브랜디 3큰술, 후르츠 칵테일(통조
림) 3컵, 바나나 1개, 체리 10개

〈만드는 법〉

- ① 물 2컵에 설탕 1컵을 넣고 10분정도 끓여 설탕시럽에 만들어 차게 식힌다.
- ②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놓는다.
- ③ 설탕시럽에 오렌지주스, 레몬주스, 백포도주, 브랜디를 넣어 잘 혼합하여 차게 준비해 놓는다.
- ④ ③의 국물 속에 후르츠 칵테일을 넣고 바나나와 체리를 넣어 후르츠 칵테일을 만든다.
- ⑤ 후르츠 칵테일을 큰 화채 그릇에 담고 시원하게 얼음을 띄운 다음 먹기 전에 잘 저어 시원한 그릇에 담아 낸다.

※ 통조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철에 많이 나오는 과일을 잘게 썰어 설탕 시럽에 끓여 식힌 다음 사용해도 좋다.





고유가 시대, 기름값 절약의 지혜

주유카드 이용, 리터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

주유카드의 할인 서비스만 제대로 활용해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업계 최고 할인 가격은 ㉔ 당 100원이다. 할인 서비스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카드별 할인혜택을 잘 비교해 자신의 주유량과 주유습관에 따라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 적립카드는 카드로 포인트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그 포인트로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이다. 리터당 할인카드는 리터당 40~80원을 할인해 주고, 주유금액당 할인카드는 주유금액에 따라 3~4%를 할인해 주는 카드다.

주유상품권 온라인 구입과 셀프 주유소 이용

각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주유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액면가를 전부 다 지불해야 하지만, 주유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3~5%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주유상품권도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구매의 경우 소액 구매 시에는 배송비가 붙게 되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은 셀프 주유소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0 여곳에 불과한 것이 단점이지만, 주유소에 따라 평균 ㉔ 당 30원~5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름값 지역별 차이, 가격비교 후 주유하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름값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주유소별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유사별로 공장도 가격이 다르고 대리점과 주유소 등이 유통마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들의 기름 가격을 알아두어 저렴한 곳에서 주유를 하고, 기름값 비교사이트를 방문해 각 지역별 가격정보를 확인한 후 주유하는 것도 절약 방법의 하나이다.

기온이 낮은 새벽에 주유하자!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료팽창이 적게 마련이므로 기온이 제일 낮은 새벽 시간에 주유를 하면 더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 기왕이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 또는 기온이 낮은 날을 택해 주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쁜 운전 습관 버리자!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하지 말고, 공회전도 기름을 낭비하는 주범이다. 트렁크 안을 최대한 비워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기름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운전 습관부터 고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족냉증

유난히 손발이 차가워 따뜻한 실내에서도 두툼한 양말을 신고, 잠을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자야했던 여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빈혈이나 두통이 특정 질환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증상인 것처럼 냉증 또한 질병이 아니며 증상의 일부이다. 따라서 손발을 차게 하는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냉증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수족냉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주원인

냉증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여성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감소해 몸이 차갑게 느껴진다.

또 생리와 출산에 따른 호르몬 변동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정서적으로 예민해진다. 이때 기온에 따라 혈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피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피부혈관을 수축하고 혈액량을 감소시키면서 냉증을 유발한다. 출산 후유증, 생리통, 생리불순, 불임환자 등에게서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족냉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소화기능이 약해도 손발이 찬 경우가 많고, 드물지만 동맥경화 환자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이 낮아질 수 있다.

▶▶▶ 수족냉증을 방지하면? 혈액순환장애나 만성 피로 느껴

손발이 시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중엔 손발이 저려오고 통증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생활에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저혈압이나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족냉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장애, 말초혈관장애가 오거나 하복부 냉증까지 수반될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치료와 예방은? 스트레스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이 좋아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이요법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 또 신경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제 복용도 도움이 된다.

평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반신욕이나 족욕 및 경락을 따라 다리 안쪽을 장딴지에서 허벅지까지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를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겨울의 추억과 낭만을 찾아서

충남 보령

겨울 바다 만나고 생굴 맛보고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미인 굴은 특히 충남 보령의 천북면 장은리의 '굴단지'가 유명하다. 영양 만점의 자연산 굴구이를 초장에 찍

어먹고 여기에 굴국수를 곁들여보자. 인근 오천항은 대표적인 키조개 산지로서 부드럽고 쫄깃한 양념구이, 키조개회, 간재미회무침이 유명하다. 해안을 따라 홍성군의 광천 토굴 새우젓을 맛보고 온가족이 모여 점토를 만들어보고 황토방에서 차 한잔을 즐겨보자. 아이들이 흙과 더불어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남당항 인근은 해산물도 유명하지만 철새도래지 천수만이 가까이 있어 서해안의 낙조와 철새의 군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제주 북제주군

마을을 지키는 당숲



제주도의 진정한 멋은 바로 때묻지 않은 생태기행에 있다. 바다가 만들어낸 해안트레킹도 좋고 밥그릇을 엮어놓은 것 같은 오름 산책 역시 감동적이다. 인공미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납읍 난대림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늘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가족 산책코스로 그만이다. 예로부터 마

을사람들이 숲을 가꾸어 왔고 숲을 경원시 여겨 마을 제사를 지냈고 시문을 나누었던 장소였다. 역새를 헤치고 새벽 오름 정상에 오르면 수많은 오름과 한라산, 산방산 그리고 시원스런 바다까지 한 눈에 펼쳐져 제주 서쪽에 자리잡은 오름 중에서 가장 호방한 눈 맛을 자랑한다. 제주에서 해안 도로를 달리는 것만큼 매력적인 코스는 없다. 하귀-애월간 해안도로는 아기자기한 카페가 준비하여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고산-일과리 해안도로는 한적한 겨울해변을 만끽할 수 있다.

경북 영덕군

영덕대게로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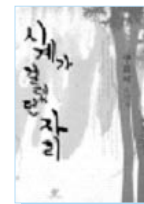
켜켜이 쌓인 마음 속 묵은 때를 털어낼 시원한 겨울바다가 그림자라면, 더불어 경치 좋고 한가로운 도로에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

다면, 경북 영덕을 찾아가 보자. 수식어가 따로 필요없는 멋진 해변이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고운 모래사장은 물론, 그 이름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화려한 먹거리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고민할 필요없이 넉넉한 여유만 부리면 된다. 가슴에 하나 가득 담아내기도 벅찰 만큼 드넓게 펼쳐지는 바다를 그대로 음미할 수 있는 해맞이공원, 바다를 벗삼아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영덕대게로, 옛사람의 향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전통마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긴 모래사장 등 마음을 열고 비울 할 장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가로등을 비롯해 온갖 조형물을 장식하고 있는 지역의 명물, 영덕대게를 맛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시계가 걸렸던 자리…… 구효서 / 창비



구효서의 창작집 『시계가 걸렸던 자리』에는 표제작을 비롯하여 「소금가마니」, 「앗쌀람 알라이쿰」, 「자유 시베리아」 등 9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구효서는 지금까지 100편 이상의 중단편과 여러 권의 장편소설을 써 온 매우 성실한 우리시대의 소설가인데, 특히 최근 들어 그의 단편소설들은 삶의 깊이와 향기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듯하다. 『시계가 걸렸던 자리』는 위암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40대 중반의 화자가 버려진 고향집을 방문하여 자신이 태어난 시공간을 되찾아보는 작품으로, 그 소설적 상상력이 예사롭지 않으며 주제와 문체에 서도 높은 성취를 보여준다. 또 「소금가마니」는 이호석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어머니의 삶을 재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인생의 숨은 의미를 잔잔하게 파올리는 수작이다. 대단히 거친 상상력과 공격적인 욕망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언어와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신현림의 싱글맘 스토리…… 신현림 / 휴먼앤북스



『신현림의 싱글맘 스토리』는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시인 신현림의 이야기이다. 그녀가 강조한다.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실수일 뿐이라고, 기운이 맞지 않아 모든 게 뒤틀린 상태를 벗어나는 일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그녀는 당연한 말을 강조하는가? 이 땅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일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싱글맘들을 '생의 빛나는 고행자'로 보고 있다. 어려서 상처받기 쉬운 아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단단해져야 하는 엄마로서, 여전히 사랑

이 좋고 남자가 좋은 여인으로서 솔직하고 성실한 그녀가 대담하게 풀어놓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 서윤에게 해주는 이 말은 어쩌면 한부모 가정에 대해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사람 사는 모양이 어때? 다 다르지 않니?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말야. 어떤 애는 할머니랑 살고, 아빠랑도 살고, 우리처럼 엄마랑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 다름을 존중해야겠지.” 〈추천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글, 강남미 그림 / 보림출판사



책만 보는 바보라고? 사실 이 책은 책에 대한 예찬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실학자 중 한 사람인 이덕무가 그 시대 같이 살았던 스승과 친구에 대한 기억을 잔잔하게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덕무가 쓴 짧은 자서전 『간서치전』을 접한 후 그 시대 이덕무와 친하게 지낸 인물들과 연결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으로 그려낸 이야기지만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 마치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시대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높은 학식을 가졌지만 서자라는 출생의 벽으로 좌절해야 했던 이덕무의 슬픔과 아픔, 실학자들의 남다른 우정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릿하면서도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펼쳐진다. 이덕무가 연암 박지원, 담헌 홍대용을 비롯하여 박제가, 유득공, 백동수, 이서구와 쌓았던 남다른 우정도 이 책을 읽는 묘미를 더해준다. 맹자를 팔아 밥을 먹고, 좌씨를 팔아 술을 마시며, 고된 생활 속에서 오로지 글과 벗의 힘으로 살아가던 옛 선비들의 고고한 삶이 새삼 가슴 뭉클하다. 이 책을 보면 책 읽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초등 3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추천자 : 김자연(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중앙회소식

교육시설·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11월 29일(화) 본회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함께 관계자 및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교육시설을 단순히 학생 수용시설이나 교수 및 학습공간이라는 합목적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학생과 교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 혹은 생활공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한 이화룡 국립공주대 건축학과 교수의 '교육시설·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발제로 시작되었다. 본회의 최애연 부장과 주부클럽의 김순복 총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건축물에서의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시스템,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 결과 안전관련 시설의 미흡함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분야의 첫 발제자인 조진일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시설물·건축물 안전관련 법률 및 규정 비교'를 통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교안전관리 소홀과 전담조직이 없음을 지적하며 민간투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김윤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내 공기질의 기준 강화와 친환경자재의 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연이어 채창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학교환경연구센터 소장의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 방안', 조희철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서기장의 '교육시설·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과 정책'에 대한 발제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유기적 접근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교육 환경 조성을 제안해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신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11월 30일(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동체적 가족문화정립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가족의 변화와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의 위기적이 요소를 인정하고, 극복 방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가족 간 유대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본회 임경애 사무총장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다.

연이은 주제발제로 김현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위원의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그 사명', 윤종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안병철 한양대학교 교수 회장의 '신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의 역할',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치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족문제 등을 짚어보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균형 잡힌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12월 13일(화) 본회 강당에서 관계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 잡힌 소비문화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균형 잡힌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제강연은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소비를 할 때 사회가 성숙해지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안정된 소비생활을 위한 물가안정운동의 과제', 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장의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대책', 김희경 YWCA 시민중계실의 '통신소비자로서의 권리 찾기 방안', 홍장희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의 '신용경제사회의 개인 신용 관리 대책', 유재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장의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정책 계획'을 주제로 열린 토론이 전개되면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소비생활을 위해선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 습득으로 현명한 소비 선택의 주체로서 소비자 역할을 제안했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장학금 전달

광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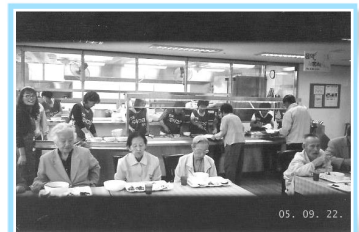
12월 9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는 모범학생 11명에게 장학금 40만원씩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단합상 수상 및 봉사활동

강남지회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



고 있는 강남지회는 12월 16일 강남구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단합상을 받았고, 지난 3월부터 매월 2회 강남구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치사 및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관악지회

11월 28일 회원 8명이 어려운 형편으로 겨울나기가 힘든 노인복지관, 경로당, 조건부수급자 등 130 가정을 방문해 쌀 22포와 김치 130박스를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부산광역시지부

청소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및 경제생활에 관한 소비자교육
시지부

지난 11월 11일, 15일, 16일, 25일, 28일, 29일에 경남중학교 외 6개 중고등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및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한국 사회 속에서의 여성과 남성을 위치를 조명해보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성 역할을 강조했다. 남녀 학생들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성차별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제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가두 캠페인 시지부

지난 11월 23일 보수동과 자갈치에서 회원 30여명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생산

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및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 생활화를 통해 부정 유통 근절에 앞장설 것을 유도했다.



수산물 엑스포 봉사활동

시지부

11월 24일~27일 4일 동안 백스코에서 국제 수산물 전시회인 수산물 엑스포가 열렸다. 이 대회의 원활한 진행 및 홍보를 위해 회원들이 수산물 먹거리 판매와 홀 서빙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소비자명예감시원 활동

시지부

지난 11월 1일~30일까지 대구시 일원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명예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유해식품 유통 차단에 위해 제조 업소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수지침 교실 운영

시지부

11월 25일 달성군 북동초등학교에서 4/4분기 교육의 하나로 환절기 건강을 위한 수지침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수지침 활용방법을 제 공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시지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비치해두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11월 12일 성 미가엘 복지관에서 인근 주민과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랑의 김장 나누어주기

시지부, 강화군지회

시지부는 11월 23일~24일 이틀 동안 회원 53명이 김장 500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화군지회는 11월 23일~24일 회원 15명이 김장김치 350포기를 담가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위생점검 및 봉사활동

부평구지회

매월 첫째 월요일인 11월 24일 회원 4명이 부평 복지관을 방문해 밀반찬 봉사활동을 했다. 22일~23일에는 관내 위치한 김치제조업소와 판매업소를 찾아가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유해업소 단속 및 국민 건강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24일에는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해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서구지회, 계양구지회, 남동구지회

서구지회는 11월 14일 석남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의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5일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주체 아나바다 알뜰장터에 참여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계양구지회는 11월 2일 회원 10명

이 강화 정신 요양원을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로 격려했다. 3일에는 회원 13명은 계양노인복지회관에서 중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남동구지회는 11월 9일 회원 12명이 남동구 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3일에는 구월동에 위치한 중앙 길 병원을 방문해 가족 없이 병원에서 연말을 보내고 계신 독거노인을 위로 격려했다.

경노잔치

남구지회, 연수구지회

남구지회는 11월 18일 회원 10명이 주안5동에 거주하고 계신 800여분을 모시고 경노잔치를 열어 중식제공 및 다과시간을 갖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연수구지회는 11월 13일 회원 8명이 망향의 한을 안고 머나먼 사할린에서 젊음을 보낸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경노잔치를 열어 이웃 사랑을 전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교육 시지부

11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2005년 하반기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에 본회 회원 중 기존 명예감시원 4명과 신규명예회원으로 위촉된 12명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서 성실한 명예감시원으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송금희 회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금 전달식 시지부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 공동대표인 본 지부 박영희 회장이 지난 10월 실시했던 바자회에서 모은 공동 수익금을 MBC 광주문화방송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2005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 참석 시지부

지난 11월 25일 경복궁웨딩홀 4층 컨벤션대연회장에서 한국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후원의 밤 행사에 본 지부가 매월 후원하는 아동 3명과 임원 3명이



참석해 선물전달과 함께 사랑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대전광역시지부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방안 토론회

시지부

지난 11월 30일 충청하나은행본점 10층 강당에서 학부모를 조사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학교 주변 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쿨존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허억 사무처장이 주제발제를 담당했고,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금홍섭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충남지방경찰청 김태길 경위와 용전초등학교 김미숙 교사 등이 참석해 전문성과 실제적인 여건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학생들



의 안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자전거와 함께하는 친환경 시장보기 및 거북이 자전거대회 실시

시지부

자전거타기 활성화운동 전개를 위해 지난 11월 7일 회원 70여명이 울산대공원 동문을 출발점으로 남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까지 자전거를 타고 친환경 시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구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고, 거북이 자전거 대회를 실시해 자전거 인구 저변 확대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엄마와 함께 환경시설 및 발전시설 견학 실시

시지부

지난 11월 16일 양사초등학교 학생

과 어머니 및 회원 등 120여명이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 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환경오염 저감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5 학습도우미 평가(보고)회 실시

시지부

지난 11월 22일~23일 현대 아트룸홀에서 실시한 2005 학습도우미 활동에 따른 연수교육 및 평가회에 학습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600여명이 참석해 초빙 강사로부터 ‘우리 아이 변화시키는 엄마 되기’란 주제 강연 등을 듣고 학습도우미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습도우미 도자기 체험 실시

시지부

11월 24일 경주 서라벌요에서 실시한 학습도우미 연수회에 동구 지역 학습도우미 어머니 600여명이 참석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그릇 만들기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청소년탐사대원 탐사활동 실시

시지부

지난 11월 26일 회원들은 청소년 탐사대원과 지도교사 40여명이 함께 태화강에서 수질과 식생 및 플랑크톤 조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지부

음식물·폐기물 분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내분비 장애물질 교육 실시
도지부

지난 11월 2일 여성회관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센터 손철옥 팀장과 본 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이 음식물·폐기물 분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내분비 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축산물소비축진 캠페인

도지부

지난 11월 7일 수원시내 지동 시장 입구에서 회원 50명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신뢰성 회복 추구와 함께 축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우이웃돕기

도지부

11월 11일 부천시 관내 보훈 봉사단에서 마련한 50여개 단체가 활동하는 대회장에 본 도지부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해 손수 만든 5,000여개의 만두와 재활용 겨울 의류 등을 어려운 이웃 및 시설에 나누어 주었다.

제14회 소비자교육 및 정보전시회
도지부

11월 17일~18일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주부와 여성단체 회원 및 초등학교자모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및 사전 예방을 내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정보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주권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지부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토론회 참석

도지부

지난 11월 15일 여성정책 개발센터에서 강원도여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토론회에 도지부 회원들이 참석해 성매매 근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성매매의 실상과 문제점을 제시한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의 심각성을 비롯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원주시지회

11월 15일 원주 여성회관에서 관계자 및 주부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화두로 여성정치 활동 기반 마련과 유능한 여성정치인 양성에 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강사로 초빙된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 곧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임을 강조하며 여성의 정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성 중심 결혼 풍습 바꾸자’ 세
미나

강릉시지회

11월 22일 여성회관에서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남성 중심의 결혼문화가 안고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강사로 초빙된 조옥순 강릉대 교수로부터 양성평등에 기초한 결혼 비용 공동 부담 및 예단 생략 등 간소화된 결혼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외국인 농촌 주부 따뜻이 맞이하자’

동해시지회

11월 25일 여성회관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동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를 초청해 전상호 농협 중앙지부장으로부터 우리 문화와 관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국땅에서 겪는 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상담해주며 모국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 격려했다.

‘에너지 절약난(暖) 2018 운동’
동참

삼척시지회

지난 11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暖) 2018’ 운동 실천대회에 회원들도 동참해 겨울철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 준수와 내복입기 및 자전거타기 등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로 다짐했다.

충청북도지부

학교폭력방지 토론회

도지부

11월 11일 한전 강당에서 관계자 및 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책 만큼 사후 지도방법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자전거타기대회

도지부

11월 18일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대회를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개최해 100여명이 참가, 건강증진 도모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사랑의 김치 나누기

괴산지회, 음성지회, 충주지회

괴산지회는 11월 22일 회원8명이 여성회관에서, 음성지회는 11월 23일 회원 10명 여성회관에서, 충주지회는 11월 24일 회원 10명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에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 및 봉사활동 실시

충주지회, 단양지회, 청주시지회,
괴산지회, 보은지회

충주지회는 11월 24일 회원 12명이 롯데마트 앞에서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단양지회는 지난 7월~11월까지 매월 3째주 토요일 단양팔경 관광지 일원에서 회원 30명이 인근 유원지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주시지회는 회원 8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사직동 복지회관을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돕고, 매주 화요일엔 회원 2명이 수곡동 알뜰매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괴산지회는 11월 22일 여성회관에서 회원 20명이 독거노인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보은지회는 11월 9일 회원 10명이 인원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다도 배우기

진천지회

11월 17일 회원 15명이 다암원을 방문해 다도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지부

에너지절약 범도민 캠페인

도지부

지난 11월 7일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충남도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및 회원 50명이 시민들에게 지도, 온도계 등을 배포하며 범도민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축산물 소비촉구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도지부

11월 11일 천안 중앙시장 주변일대에서 회원 50여명이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배포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및 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노력하는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유도했다.



지역물가 안정 및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청양군지회

지난 11월 7일 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양대학교 김승중 교수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지역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건전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웃사랑 알뜰바자회

서산시지회

11월 17일 시청 앞 1호 광장에서 하반기 특별활동으로 이웃사랑 바자회를 실시해 판매 수익금을 무의탁 노인 가정 2곳에 전달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천안시지회

11월 17일 축산농협 본점에서 회원 120여명이 단국대학교 이효선 교수로부터 소비자 교육을 받았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이

경제 불안 해소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권리 찾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북도지부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 교통질서 캠페인

도지부

전북 일등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11월 14일과 21일 전주시가 일대에서 전개했다. 안전띠 착용과 차량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릴레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완주군지회, 익산시지회, 김제시지회, 정읍시지회, 진안군지회, 무주군지회, 고창군지회

완주군지회는 11월 26일과 29일 화산면에 위치한 '사랑의 집'과 봉동 여

성회관을 방문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김장 3000포기를 전달했다.

익산시지회는 11월 22일 회원 4명이 신흥동에 거주하는 모자가정과 독거노인에게 김장을 나누어 전달했다.

김제시지회는 11월 14일~16일 김제기 자활센터에서 회원 12명이 장만한 김장 1000포기를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12세대에 나누어 주었다.

정읍시지회는 11월 16일~18일 회원 15명이 정읍복지회관에서 김장 2500포기를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누어 전달했다.

진안군지회는 11월 18일 회원 5명이 반월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 1500포기를 나누어 전달했다.

무주군지회는 11월 8일~11일 회원 15명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불우한 이웃 22세대에 김장을 나누어 주었다.

고창군지회는 11월 23일~24일 회원 10명이 고창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에게 따뜻한 겨울



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김장 2000포기를 나누어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정읍시지회, 고창군지회, 순창군지회

정읍시지회는 11월 1일~15일까지 회원 10명이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길 안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고창군지회는 11월 8일 고창읍 그랜드 호텔에서 회원 10명이 독거노인 75명의 칠순잔치를 준비해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했다. 22일에는 회원 6명이 독거노인 30명이 생활하고 계신 효도의 집을 찾아가 목욕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순창군지회는 11월 24일~29일까지 회원 15명이 순창 중앙회관에서 바자회를 개최해 재활용 의류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전라남도지부

지도자 연수회 및 전남대회

도지부

11월 15일~16일 전라남도교육연구원에서 '함께여는 밝은 세상 여성의 힘으로!'를 주제로 도지부 및 22개 시·군 지회 임원과 지도위원 등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자 연수회 및 전남대회를 개최했다.

'물과 생활'을 주제로 한국수자원연구소 김우구 원장으로부터 물 사랑 교육, '부자가 되는 길'을 주제로 동신대학교 최영만 교수로부터 생활경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여성 지도력 함양에 힘썼다.



물사랑 홍보 캠페인

도지부

11월 17일~22일까지 여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광주김치축제 기간 동안 수자원공사 전남권지역본부 임직원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리플렛 배포 및 병물을 나누어 주며 물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전거타기 생활화 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

11월 22일에는 광양시청회의실에서 주부 및 일반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자전거의 필요성 및 건강과의 상관관계 등 안전교육

을 실시했다. 26일에는 광양읍내리 5일 시장 입구에서 회원 50여명이 자전거타기 생활화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부간 사랑나누기 대회

나주시지회

11월 25일 나주시청회의실에서 주부 및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속에 내재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 실시

여수시지회, 구례군지회

여수시지회는 11월 30일 회원 30명이 동여수복지관을 방문해 부양가족 없이 쓸쓸한 말년을 보내시는 독거노인 200명의 무료 급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례군지회는 11월 24일 구례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빨래와 청소 및 목욕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남지역의 물사정과 장래전망’ 물 사랑 교육

함평군지회

11월 24일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부 및 일반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연구소 고광홍 연구위원을 초빙해 강수량 부족으로 고갈되어가는 농업용수 부족현상 극복 등 전남지역의 물 사정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물 보전을 위한 물 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부

등반대회 및 캠페인 전개

상주시지회, 군위군지회

상주시지회는 11월 29일 천봉산에서 열린 여협 주관 등반대회에 참여해 자연보호캠페인을 펼치며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천을 다짐하며 회원 간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지회는 11월 10일과 24일 팔각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 실시한 바른선거운동 캠페인 및 등반대회에 회원 전원이 참석했다.

릴레이 위안잔치 및 봉사활동

영주시지회, 포항시지회, 청도군지회, 울진군지회

영주시지회는 11월 16일 하망동 성당에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점심식사 및 다과를 준비해 위안잔치를 열어 위로 격려했고, 빨래와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포항시지회는 11월 16일 회원 전원

이 성모자애원 요셉의 집을 방문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위해 식사 및 다과 등을 준비해 이웃의 정을 전달하는 위안잔치를 실시했다. 25일에는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신광면 기일리 농가를 회원 전원이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도군지회는 회원 전원이 군내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감따기 작업 등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울진군지회는 11월 14일 불우 이웃 2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하며 빨래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8일에는 여성단체주관으로 실시한 일일찾집영에 동참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경상남도지부

갱생보호 합동결혼식 참석

도지부

11월 22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갱생보호전진대회 및 제19회 새생활 합동결혼식을 가졌다. 본 지부에서도 출소 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모범 갱생보호대상자 6쌍에게 곰솔 6점을 전달하며 축하 격려했다.

나눔 장터 바자회 개최

밀양시지회

11월 10일 삼문동 영남루 앞 야회 공연장에서 나눔 장터 바자회를 개최했다. 재활용 의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교환 및 회원들이 손수 제작한 구슬 공예품과 헤어런스 등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제주도지부

제주지하수 및 삼다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도지부

11월 16일 제주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제주지하수 및 삼다수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성원 (주)호남지질공사 대표이사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용구 원장, 제주대학교 이용두 교수, 제주지방개발공사 품질연구부 고경수 박사 등이 참여해 삼다수 증산 필요성 및 신규 수원 개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추장만들기 체험교육

도지부

11월 16일 세미나 이후 회원 100여명이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추장만들기 체험교육을 통해 전통 고추장의 맛과 조상들의 장 만들기 지혜를 습득할 수 있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도지부

무역자유화로 인해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11월 24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 및 구입 요령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우리 농산물 애용에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다. ■

● 동정란 ●

재정경제부가 12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제10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쓴 공로로 본회의 경기도지부 박청자 회장이 국민 포장율, 의정부지회 최정연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이정숙(대전광역시지부 이사), 권순자(경기도지부 모니터), 이명란(경북도지부 모니터), 조희옥(중앙회 모니터), 장경순(중앙회 모니터) 등 5명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주부교실게시판 ●

제26차 주부대학동문회 및 송년회

본회 주부대학동문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사업을 총 결산하고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동문회 및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5년 12월 27일(화) 11:00
- 장 소 : 롯데호텔 잠실점 3층 크리스탈볼룸

2006년도 시무식

본회 중앙회 임직원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시무식을 다음과 같이 갖는다.

- 일 시 : 2006년 1월 4일(수) 14:00
- 장 소 : 본회 강당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전화, 팩스, 서신, 인터넷 및 방문 등 소비자상담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전 화 : (02)2273-2485, 6300, 2265-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100-015)

- 홈페이지 : www.nchc.or.kr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1·2월 주요 프로그램 안내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소재)에서 다음과 같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 간	수 강 료
취업 및 창업훈련반				
주산식 암산 지도자(4기)	1.4	4주	수, 금 (10:00~13:00)	5만원 (교재, 주판별도)
글짓기 독서지도자 양성반(3기)	1.9	12주	월 (10:00~12:00)	12만원 (교재비별도)
아트패키지 예비과정	1.6	12주	금 (13:00~15:00)	월2만원 (재료별도)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천연비누과정	1.6	12주	수 (10:30~12:00)	6만원(재료비별도)
손뜨개	1.5	8주	목 (10:00~12:00)	월2만5천원(재료비별도)
홈페이지 만들기	1.4	7주	월, 수, 금 (14:30~16:30)	무료
단기직종프로그램				
베이비시터(4기)	1.9	2주	월~금 (09:30~12:30)	5만원 (교재비포함)
재직근로자				
미용사 자격증반	2.7	2.7~5.25	화, 목 (19:00~22:00)	45만원 (70~80% 환급)
패션메이킹 및 의류제작	2.7	2.7~3.30	화, 목 (19:00~22:00)	23만원 (184,000원 환급)
한식조리사	2.7	2.7~4.27	화, 목 (19:00~22:00)	30만원 (24만원 환급)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